

TDB 경기동향조사 (전국) - 2024년 11월 조사 -

2024년12월4일
 주식회사테이코쿠테이터뱅크 정보통괄부
<https://www.tdb.co.jp>
 경기동향온라인 <https://www.tdb-di.com>

국내경기는 2개월 만에 개선되었으나 소폭에 그쳐

~ 재해복구공사 및 관광 관련이 플러스로 작용했으나 내구소비재 부진이 억제요인으로 ~

(조사대상 2 만 6,880 사, 유효회답 1 만 939 사, 회답율 40.7%, 조사개시 2002년 5월)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4년 11월의 경기DI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44.4로 소폭이지만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복구공사 등이 플러스로 작용한 한편 내구소비재 부진 등도 영향을 미쳐 약간의 개선에 그쳤다. 향후는 개인소비 동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가운데 낮은 추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서비스』 등 6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공사관련 및 도시재개발 등이 호재가 되어 운수 관련에도 파급하였다. 한편 원재료 가격의 고공행진 및 불안정한 기후 등은 하락 요인이었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5개 지역이 개선, 3개 지역이 보합, 2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반도체 관련 및 인바운스 수요가 지역경제의 호재가 된 한편 지방업자가 맡은 설비투자의 감소는 악재였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은 개선, 「대기업」과 「소규모기업」은 보합으로 나타났다.
- 반도체와 관련된 설비투자 및 관광수요, 재개발, 각종 이벤트 등 지역 특유의 밝은 목소리도 들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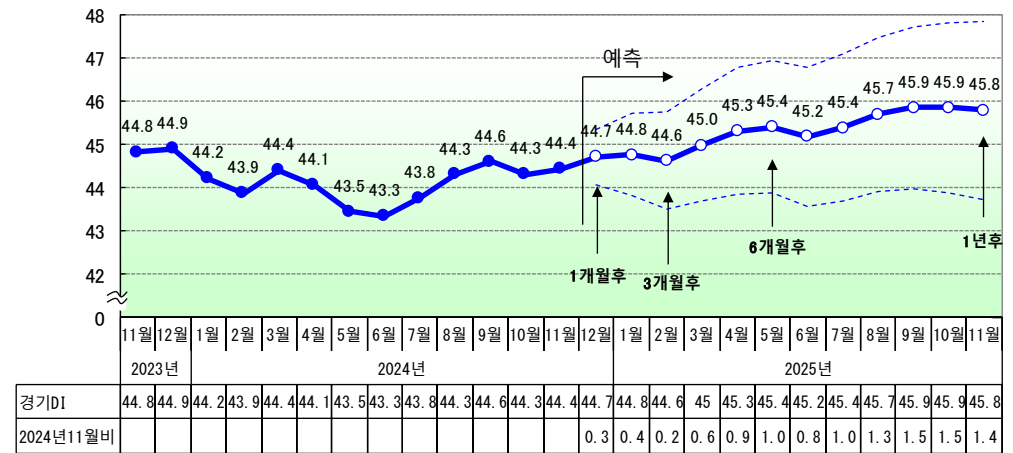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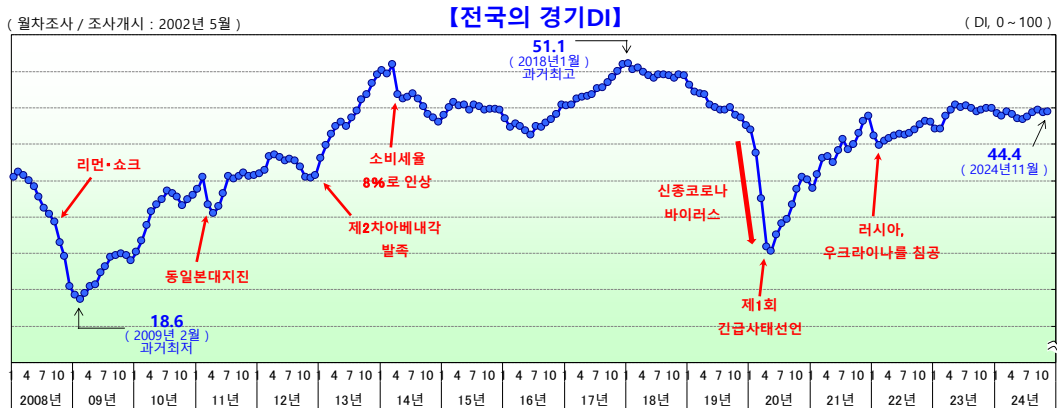
< 2024년 11월의 동향 : 약간 개선 >

2024년 11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44.4로 소폭이지만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재해 복구공사 등이 플러스로 작용한 한편 내구 소비재가 부진했던 것 등도 영향을 미쳐 약간의 개선에 그쳤다.

11월은 건설관련 및 관광산업 등이 상승 요인이 된 한편 반도체 수요의 증가도 플러스 요인이었다. 또한 겨울 상품이 움직이기 시작하여 어패럴 소매는 크게 상향하였다. 다만 가계의 절약지향은 높고 가전 및 자동차 등의 내구소비재의 판매가 부진하였다. 게다가 인력부족 및 원재료 가격의 급등 등도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 향후의 전망 : 낮게 추이 >

향후는 개인소비 동향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 동계 상여 등 실질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이 소비 의욕 지속에 직결될 것이다. 게다가 금리 및 환율, 주가, 세계 재정비 등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플러스 요인으로는 관광산업의 신장 및 인력 부족에 대응한 설비투자 확대, 리스킬링 침투가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생성형 AI 보급 및 반도체 수요확대로 인한 기술혁신은 성장의 견인 역할이 될 것이다. 마이너스 요인으로는 물류 코스트 상승 및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수익을 압박하여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꺾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국의 새 대통령의 경제정책 및 중동정세 등은 리스크 요인이다. 향후의 경기는 낮게 추이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